초록번호 08-1

제 목	국 문	위암 조기검진 효과에 대한 환자-대조군 연구		
	영 문	A Case-control Study on Screening Effect of Stomach Cancer		
저자 및 소속	국 문	구정완, 이원철, 황인영, 한지연*, 김훈교*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내과학교실*		
	영 문	Jung Wan Koo, Won Chul Lee, In Young Hwang, Ji-Youn Han*, Hoon-Kyo Kim*		
분 야	역학		발 표 자	구 정완
발표 형식	구연		발표 시간	15분
진행 상황	연구완료 ( ), 연구중 (○) → 완료 예정 시기 : 99 년 6 월			

1. 연구 목적

한국은 위암의 호발국으로 년간 14,000명이상의 위암 환자가 발생하고, 사망률은 인구 100,000명당 9,400명으로 1996년도 조사에 의하면 암사망의 첫째원인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위암 발생률 및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지침이 전무하다. 이에 호발암인 위암의 조기검진을 위한 제도적인 제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이를 위해서 적절한 검진방법의 제시 및 시행을 통하여 한국에서 효율적인 검진방법을 확립하고 나아가 위암의 사망률 감소와 국민적인 계몽을 통한 위암 발생률의 감소도 도모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조기검진 방법의 확립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환자-대조군 연구를 통하여 조기검진이 효과가 있는지를 보고자 하였다.

2. 연구 방법

환자군은 3차병원인 2개 병원에서 1997년 9월부터 1998년 4월까지 위내시경검사를 통한 조직병리검사에서 위암으로 새롭게 확진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포함기준은 조직병리검사에서 진행성 위암으로 진단된 경우로서, 70세 미만으로서 다른 만성적인 심각한 전신성 질환을 가지지 않은 환자로서 의사소통이 가능한 환자 10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조군은 동 병원에 입원한 사람으로서 다른 만성적인 심각한 전신성 질환을 가지지 않은 환자로서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성, 연령(5세 간격)을 짝짓기하여 102명을 선정하였다.

환자군이나 대조군 모두 훈련된 조사원이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일반 변수에 대한 조사와 조기검진에 대한 조사로서 조기검진 여부, 횟수, 방법, 검사 일시 및 조기검진을 받게된 이유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진단일, 조직분류, 병기 및 TNM stage는 입원 기록을 검토하였다.

분석은 환자가 진단 받은 날짜를 기준일로 정하였으며 1:1로 짝지은 대조군에서 이 기준일을 적용하여 그 이전에 조기검진 수검여부 및 횟수에 따른 교차비를 계산하였다. 환자군의 경우 증상으로 인한 검진의 효과를 없애기 위하여 환자군과 대조군 모두에서 공히 기준일 6개월 이내에 시행된 조기검진은 제외하였다.

3. 연구결과

1) 5년 이내 조기검진 경험력에 의한 진행성 위암 발생의 교차비는 0.71(95% 신뢰구간: 0.36-1.40)이었다.

2) 위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진행성 위암 발생의 교차비는 0.17(95% 신뢰구간: 0.02-0.98)로 유의하였으며, 위암 가족력이 없는 경우는 교차비가 0.98(95% 신뢰구간: 0.46-2.05)이었다.

3) 1년이내에 조기검진 경험력에 의한 진행성 위암 발생의 교차비는 0.65(95% 신뢰구간: 0.30-1.37), 1-2년이내는 0.37(95% 신뢰구간: 0.03-9.19), 2-3년이내는 0.68(95% 신뢰구간: 0.10-4.24), 3-5년이내는 2.45(95% 신뢰구간: 0.23-53.8)을 보였다.

4) 조기검진 횟수별로는 조기검진을 1회 받은 경우에 진행성 위암 발생의 교차비는 0.83(95% 신뢰구간: 0.37-1.83), 2회 이상 받은 경우의 교차비는 0.49(95% 신뢰구간: 0.15-1.50)이었다.

4. 고찰

조기검진의 효과를 보기 위하여는 사망률 조사가 더 타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위암, 자궁경부암의 경우에는 진행성 위암을 대상으로 발생률 조사를 하여 조기검진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암의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자로서는 사회경제적 요인, 흡연, 음주, 식이요인, 위암가족력, 운동 등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결혼상태, 교육수준, 흡연, 음주에서 환자군과 대조군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위암가족력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진행성 위암 발생의 교차비를 산출할 때, 연령, 성, 위암 가족력으로 보정을 시행하였으며, 이러한 인자 이외에도 식이요인, 운동, 사회경제적 요인 등에 대한 특성을 고려하여 더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한 환자-대조군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